



해외 경쟁력 확보 위한 노동생산성 향상

2012 노동생산성 92 불과 '구조 개선이 답'

OECD 회원국 34개국 중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은 오래하지만, 효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노동생산성 역시 OECD 평균 대비 79.9%, 미국의 60.6%, 일본의 86.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꼭 이뤄져야 한다.

노동생산성 향상 위한 구조개선 절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23위로 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대비 79.9%, 미국의 60.6%, 일본의 86.6%에 불과하다.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미국(1704시간), 일본(1728시간), 독일(1406시간)보다 훨씬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랜 시간 일하지만 효율은 떨어진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평균 노동생산성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인쇄 및 기록

매체복제업의 생산성은 어떨까?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8년에는 제조업 87.4, 인쇄업 88.3을 나타냈다. 2009년에는 제조업 89.2, 인쇄업 84.7, 2011년에는 제조업 103.6, 인쇄업은 94.8, 2012년에는 제조업 103.4, 인쇄업 92.0을 나타내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생산성은 제조업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5년 평균 노동생산성지수는 91.96을 나타냈으며, 2011년 이후 기준점인 2010년보다 노동생산성이 나빠지고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이 요구된다.

노동생산성지수 (2010=100)

	제조업	인쇄업		제조업	인쇄업		제조업	인쇄업
2008	87.4	88.3	2008.1/4	88.0	75.6	2/4	101.9	96.0
2009	89.2	84.7	2/4	91.4	87.6	3/4	98.6	95.6
2010	100.0	100.0	3/4	88.0	87.2	4/4	104.6	118.0
2011	103.6	94.8	4/4	82.1	104.7	2011.1/4	100.5	98.4
2012	103.4	92.0	2009.1/4	75.7	77.4	2/4	105.3	88.4
			2/4	89.3	76.2	3/4	101.3	88.6
			3/4	94.4	86.2	4/4	106.9	103.5
			4/4	97.3	99.3	2012.1/4	102.7	90.8
			2010.1/4	94.6	90.6	2/4	105.4	89.8

단위노동비용지수 (2010=100)

	제조업	인쇄업		제조업	인쇄업		제조업	인쇄업
2008	102.6	109.4	2008.1/4	100.1	120.0	3/4	106.3	107.0
2009	102.8	115.6	2/4	92.4	107.4	4/4	99.3	84.9
2010	100.0	100.0	3/4	106.1	121.0	2011.1/4	99.3	107.5
2011	98.1	115.1	4/4	113.2	92.6	2/4	89.7	119.9
2012	104.4	127.3	2009.1/4	118.3	126.4	3/4	105.1	126.6
			2/4	96.2	124.0	4/4	98.9	108.7
			3/4	99.0	117.0	2012.1/4	107.3	130.0
			4/4	100.3	99.6	2/4	95.0	126.1
			2010.1/4	103.5	112.6	3/4	112.0	134.0
			2/4	91.6	99.5	4/4	103.7	120.0

단위노동비용 상승추세

단위노동비용은 똑같은 상품 1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비용, 곧 상품 한 단위를 만드는 데 드는 인건비를 말한다. 단위노동비용은 노동비용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단위노동비용도 커지고, 반대로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2011년 이후 기준점인 2010년보다 노동생산성이 나빠지고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이 요구된다.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단위노동비용은 감소한다. 다시 말해 단위노동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은 임금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 보다 높아져 해당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단위노동비용 지수를 살펴보면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8년에는 제조업 102.6, 인쇄업 109.4, 2009년에는 제조업 102.8, 인쇄업 115.6, 2011년에는 제조업 98.1, 인쇄업 115.1, 2012년에는 제조업 104.4, 인쇄업 127.3을 나타냈다. 이처럼 인쇄업의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한 것은 임금이 상승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기준연도인 2010년에 인쇄물 수출 활성화로 인쇄물 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 단위노동비용을 하락하게 한 이유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은 얼마만큼의 노동력을 들여 어느정도 생산했는가를 따져보는 것으로 생산에 대한 노동의 기여도, 생산효율, 기술수준 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지수를 살펴보면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8년에는 제조업 90.1, 인쇄업 87.1, 2009년에는 제조업 90.8, 인쇄업 99.1, 2011년에는 제조업 104.8, 인쇄업 114.6, 2012년에는 제조업은 106.1, 인쇄업은 109.8을 나타냈다.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 (2010=100)

	제조업	인쇄업		제조업	인쇄업		제조업	인쇄업
2008	90.1	87.1	2008.1/4	85.9	73.9	3/4	99.3	94.7
2009	90.8	99.1	2/4	95.4	86.6	4/4	105.6	118.9
2010	100.0	100.0	3/4	91.7	85.5	2011.1/4	97.8	119.8
2011	104.8	114.6	4/4	87.5	104.2	2/4	108.2	107.5
2012	106.1	109.8	2009.1/4	76.0	89.4	3/4	103.3	106.0
			2/4	92.0	89.5	4/4	110.0	124.7
			3/4	95.4	100.5	2012.1/4	100.2	107.3
			4/4	99.9	117.2	2/4	110.1	107.4
			2010.1/4	91.3	90.6	3/4	103.5	106.3
			2/4	103.6	95.9	4/4	110.4	118.1